

1 본회소식



▲사진 왼쪽부터 이인에 이민주 배기열 유인수 권영걸 김인중 이종상 안수경 변영혜 안기순

김인중 동문 미대최초 관악대상 수상

지난 3월 2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3층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서울대학교총동창회 총회 및 관악대상 시상식에서 미대동문 최초로 파리도미니크수도회 사제 김인중(59회화) 동문이 관악대상을 수상했다. 1969년 도불해 파리 도미니크수도회에서 사제 서품을 받은 김인중 동문은 노트르담대성당을 비롯해 유럽 각국과 미국, 일본, 한국 등에서 60여년간 200여회의 전시회를 개최하고 등 적극적인 예술활동을 펼쳐 프랑스 정부의 문화예술공훈훈장을 받았고 프랑스 가톨릭 아카데미 회원에 추대됐다. 특히 스테인드글라스 작가로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어 그의 작품은 프랑스 사르트르 대성당을 비롯해 세계 50개국에 설치됐다. 가장 큰 업적은 사제의 극찬을 받은 스테인드글라스 제조공법

의 창안으로 전통기법에서 납선을 제거하고 동양의 붓을 사용하여 유리 위에 직접 그림을 그렸다. 르몽지는 이 제작공법이아말로 스테인드글라스 제작의 새로운 장을 여는 동시에 동서양을 초월하는 범세계적인 기법이라고 극찬했다. 또한 200여회의 전시회를 통해 얻은 수익금 전액을 기부했으며, 한국에서는 20년전부터 3년에 한 번 꼴로 국내 전시회를 열어 수익금 전액을 불우이웃 돕기에 기탁하고 있다. 한편 관악대상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인규)는 지난 3월 1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김인규 위원장을 포함해 변주선(60영어교육) 대림성모병원 행정원장 등 운영위원 12명이 참석해 심의를 열고 김인중 동문 등 4인을 제24회 관악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특히 그동안 관악대상 미대동문 수상자가 없었던 것을 감안해 권영걸 회장 주도로 본회가 김인중 동문을 적극 추천한 결과 관악대상 첫 미대동문 수상자가 탄생하게 됐다.

인터뷰

미대동문 최초 관악대상 수상
김인중(59회화) 신부

관악대상을 수상하게 되신 소감은?

미술대학을 졸업한 지 어언 60년이 지난 오늘날 수상소감이란 기적이 따로 있나 싶습니다. 받고 싶은 상은 저 세상에 유보되어 있을텐데 지상에서 이미 상을 받게 되니 고개가 숙여질 뿐입니다.

국내외에서 다양한 전시와 스테인드글라스 제작 등 많은 활동 중 특히 기억에 남는 전시는?

스테인드글라스 작품 설치, 그림 전시회, 도자기전은 늘 기억이 새롭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용기를 얻었던 일은 제가 설치한 아일랜드 롱퍼드(Longford) 대성당 스테인드글라스가 스위스 로잔 일간지 르 마탱(Le Matin)이 선정한 세계 10대 스테인드글라스 중 하나로 선택되었던 일입니다. 게다가 감사하게도 마티스와 샤갈에 앞서 1위로 뽑혔습니다. 또한 이태리, 대만에서 피카소 작품과 다른 작가들과 열렸던 도자기전에서 얻은 반응 역시 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나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는데 큰 디딤돌이 되었다고 할까요?

사제와 화가로서의 삶은?

이 질문은 늘 제게 던져집니다. 마침 지난 해 성탄에 방영되었던 KBS에서 제 삶과 예술을 다룬 다큐 “천사의 시”가 답변이 될 것입니다. 저로서는 이 두 정체성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신부님께 예술이란 무엇이며 어떤 의미이신지?

이 세상은 창조주의 작품입니다. 예술가들은 그것을 비취내는데 사명이 있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누릴 것을 다 누린다면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즉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는 일이겠지요. 말하자면 그것은 높이, 길이, 넓이, 깊이의 4차원에 속하는 불변의 새로움입니다. 세잔, 반 고흐, 마티스, 보나르 같은 작가들은 화가의 사명에 이미 수도자 같은 영성을 깊이 체득한 작가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평범한 소재를 성스러울만큼 변화를 가져다 준 영혼의 아름다움이 배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시기의 어려운 터널을 지나며 대중들에게 주고 싶으신 메시지는?

두려운 전염병이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사실상 겁나는 대상은 코로나가 아니라 사랑의 부재, 온갖 부패로 오염될 수 있는 무감각일 것입니다. 마스크 뒤에 숨어 있는 시기, 질투, 분노, 탐욕, 권위 같은 부정적인 요인들에서 우리 모두가 자유로워졌으면 합니다. 바이러스 확산으로 제한적인 환경이지만 새 봄과 함께 높은 하늘과 넓은 바다, 자연을 묵상하는 데서부터 치유가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내외로 많은 활동을 하시면서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규칙적인 생활과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는 평정을 간직하려 노력합니다.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과 화해하면서 제가 상처를 준 일은 없는지 살핍니다. 신체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 심리적인 안정 역시 늘 스스로 다스려야 할 매일의 일과입니다. 과거도 내일도 아닌 <지금, 여기에>를 수시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하고 싶으신 일 또는 새로운 계획은?

체력적 제한이 없는 한 창의력은 무한한 것이라 여겨집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새로운 창작물이 탄생되리라 스스로 기대해봅니다. 그동안 작업의 연수과정을 발판으로 앞으로 보이지 않는 바다 밑의 보물을 끌어올리고 싶습니다. 이 바람은 사제로서 성령의 힘에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천재나 성인의 길 조차도 타고 난 것이 아니라 노력으로 완성해 가는 과정이라는 말을 자주 되새깁니다.

미대 동문으로서 자부심이나 동창회 발전을 위해 하시고 싶은 말씀은?

우리 미술대학은 우리들의 요람이며 고향같은 곳입니다. 모든 선후배가 가족친지처럼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며 희망과 아름다움을 나누는 곳이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예술인으로서 울타리 없는 무한의 세계로 가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행에 휩쓸리거나 파벌 형성으로 인해 어떠한 창작의 방해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여겨집니다. 어떤 대가들의 문하생이 되는 일도 재능발견에 있어 그리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의 길을 열어주는 사람입니다. 루오, 마티스, 마르케 같은 대가들은 입을 모아 자신들의 스승들을 잊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실로 부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미술대학의 스승님으로 유감스럽게도 거의 잊혀진듯한 우리 회화과 송병돈 교수님. 아버님 같았으면서도 존경스러웠던 어른으로 가슴 속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친구로는 고교 시절부터 오늘날까지 우정을 나누는 이중상 화백이 자랑스롭습니다. 그리고 학연과는 전혀 무관하지만 예술가 선배로서 남관 화백. 그 분과의 교류는 하느님의 선물로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본회 소식

신입회원 기념품증정



백으로 냉정과 지성을 상징하는 서울대 고유의 색인 남색에 본회 로고를 흰색으로 프린트했으며 다양한 수납공간을 갖추고 있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본회는 2021년부터 모교를 졸업(석박사포함)하는 신입회원에게 입회기념품을 증정하고 있다.

서울대오피스 재개소

본회(회장 권영걸) 서울대오피스가 지난 3월 8일 재개소 되었다. 서울대오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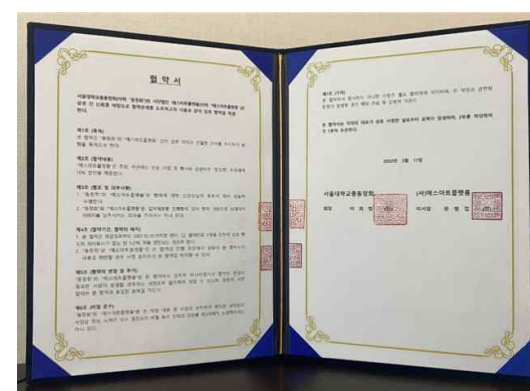
본회는 올해 신입회원이 되는 2022년도 모교 졸업생 110명(학사 74명·석사 22명·박사 14명)을 대상으로 졸업을 축하하고 미대동창회 입회를 환영하는 뜻을 담아 기념품을 증정하였다. 올해의 기념품은 본회에서 특별 제작한 다용도 워시

는 지난해 8월 모교 52동 리모델링 사업으로 인해 205호로 임시로 이전했었다. 서울대오피스는 매주 화요일(오전10시~오후5시)에 운영하며, 선릉오피스는 본회 산하 (사)에스아트플랫폼과 연계해 기존과 동일하게 매주 월~목(오전10시~오후5시)에 운영한다.

서울대 오피스: 서울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50동 311호

선릉 오피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311 아남타워 1323호

에스아트플랫폼 서울대총동창회와 MOU체결



들은 특별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본회 산하 (사)에스아트플랫폼이 서울대학교총동창회(회장 이희범)와 지난 3월 17일 MOU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생략하고 양해각서만 작성했다. 양 단체는 상호 협력 관계 하에 제휴업무를 진행하게 되며, 추후 에스아트플랫폼이 주관하는 사업 및 행사에서 서울대 동문

모교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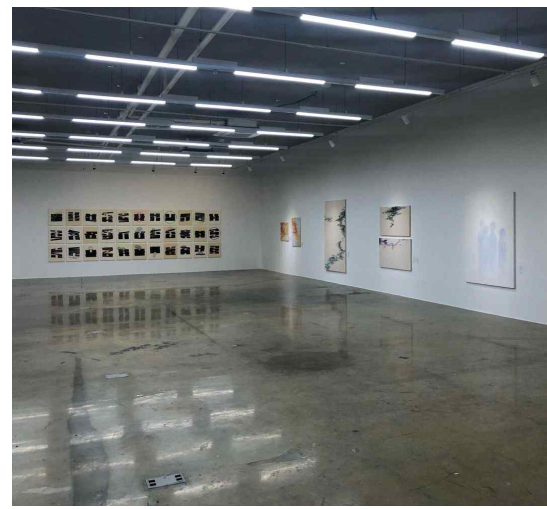


관악창의예술영재교육원 신입생 모집

서울대학교 미술대학(학장 김성희)이 서울시 관악구(구청장 박준희)와 함께하는 학·관협력사업인 '관악창의예술영재교육원'의 제10기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3월16일 밝혔다. '관악창의예술영재교육원'은 상상력과 창의력뿐만 아니라 문제 인식력, 협력학습에 필요한 배려, 협동심 등 창의성과 인성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예술영재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모든 교육과정은 무료로 운영되며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토요일과 방학 중 미술을 기반으로 한 인문, 과학, 역사 등 융합형 예술교육을 진행한다. 수업 운영은 코로나 상황에 따라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을 병행할 예정이다. 모집대상자는 관악구 거주 초등학교 4~6학년 학생으로 기초반(30명)을 신규모집하며, 2021년도 제9기 수료생을 대상으로 심화반(15명)을 재선발해 총 45명(사회적배려계층 9

명 포함)을 모집한다. 신입생 선발일정은 지난 3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원서 접수를 시작으로 4월 8일 1차 서류전형 결과를 발표하고 16일 2차 전형(실기평가 및 심층면접)을 거쳐 25일 최종 합격자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 관악창의예술영재교육원 또는 관악구 교육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관악창의예술영재교육원은 단순한 미술교육에 그치지 않고 수료 전 학생 작품 전시회를 개최해 학생들의 창의력과 무한한 잠재력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서울대의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특화된 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우리 학생들이 문화·예술 분야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석갤러리 4월 재개관



모교 74동 예술복합연구동 2층에 위치한 우석갤러리가 휴지기를 마치고 올해 4월에 재개관을 한다. 우석갤러리는 그동안 미술대학 구성원의 참여로 이루어진 전시를 학내외 관객들과 공유하며 잠재력 있는 작가와 기획자의 역량을 발굴해왔다. 올해에도 우석갤러리는 함께 할 학내 구성원들의 전시를 공모했다. 지원자격은 2022년 모교 재학생 및 대학 내 구성원 개인 또는 단체이며, 선정된 구성원의 전시 가능 날짜는 4월 1일~6월 3일, 6월 24일~12월 2일, 12월 28일~(2023년)2월 28일이다. (전시 가능 기간은 학교의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으며 추후 확정된 기간과 학교의 행사가 중복되는 경우 전시 일정이 조정될 수 있음.)

서울대미술관 소식

튜링 테스트: AI의 사랑 고백



2022년 3월 24일 - 5월 22일
전 시 실 : 1-4
전시부문 : 회화, 영상, 설치 등 90여 점
참여작가 :
노진아 문성식 박관우 이덕영 이섫별
이재석 임동열 전보경 정 승 홍세진
서울오픈미디어(권병준 백주홍 김택민)

인공지능과 디지털 휴먼(Digital Human)의 활주로에서

가상의 고대 제국을 배경으로 하는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의 단편 『과학적 정확성에 관하여』에는 완벽한 지도를 만드는 데 강한 집착을 가진 사람들의 길드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실제에 가까운 지도를 만들기 위해 점점 더 큰 지도를 만듭니다. 지도는 실제의 100만 분의 1, 10만 분의 1, 다시 1만 분의 1의 척도로 확대되다가, 중국에는 제국의 모든 지점들이 완벽하게 1대1로 대응되는 지도를 만들어내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그 지도가 현실을 뒤덮어 또 하나의 현실이 되자 사람들은 어느 것이 진정한 실재인지를 구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그 완벽한 지도는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쓸모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지도는 더 이상 지도가 아니다." 보르헤스의 단편에 나오는 지도학자들은 점점 더 휴먼을 닮아가는 디지털 휴먼, 인간을 쏙 빼닮은 인공지능을 만들고자 하는 오늘날의 과학기술에 대한 비유로서 적절합니다. 인간은 인간을 능가하는 지능의 도래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컴퓨터 과학자들에 의하면 2040년 즈음, 인간의 지능은 인공지능에 추월당할 것이라 합니다. 노동을 비롯한 인간의 일상은 이미 빠르게 인공지능으로 대체되는 중입니다. 오진율 제로인 인공지능 의사에, 심지어 사랑도 감정을 가진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위험한 노동이나 전쟁도 로봇 신체를 지닌 인공지능이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인

간은 '강(強)-인공지능', 즉 인공지능에 유전공학, 나노기술이 적용된 신체로 현저하게 진화된 신인류, '인간강화(human enhancement)-종'으로 스스로 진화할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과 인공지능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구분이 폐기될수록, 질문은 다시 인간에 대한 질문으로 소급되고 더욱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결말도 중국에는 보르헤스의 '완벽한 지도'와 대동소이한 것이 아닐까요? 물론 그 결말만큼은 1대1로 대응되는 지도의 쓸모없음을 능가하는, 훨씬 더 무겁고 어두운 것일 공산이 큼니다.

이 전시가 개막을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침범으로 인해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현 과학기술은 인공지능이 인간 병사를 대신해 전쟁을 치르는, 그러니까 상대방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살상하는 디스토피아적인 미래를 제시합니다. 하지만 전쟁이 없는 미래에 대해서는 왜 상상하지 않는 것인가요? 인공지능이 인간의 오류를 줄이는 쪽으로 진행될지, 획기적으로 증폭시키는 쪽으로 진행될지는 결국 인간의 몫으로 남을 것입니다. 인공지능이건 강-인공지능이건, 인간의 작품이기에 결국 인간의 오류를 재현하거나 증폭시킬 개연성이 상존한다는 반성적 성찰의 크기에 달린 문제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다시 자신을 둘러싸고 위협하는 신화들 또는 이상들, 이념, 국가, 자본, 기술 등과의 치열한 싸움에 변함없이 나서는 인간의 몫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질문은 다시 인간에 대한 질문으로 소환되고,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더 단순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섹터쥬페리의 말을 기억해봅시다. "단순함의 완벽함이란 더 이상 보탬 게 남아있지 않을 때가 아니라 더 이상 뺄 게 없을 때 완성된다." 단지 인간의 욕망을 재현하는데 과학기술이 고삐를 질 때, 인공지능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예술이 이제껏 인간으로서 해온, 인간을 위해 해온 싸움을 지속하고자 하는 것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음을 새삼 확인합니다. 이 전시에 초대된 작가들의 사유야말로 이 소중한 싸움이 진행되는 현장들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서울대미술관장 심상용

대입정책팀 신설

서울대학교(총장 오세정)는 장기적인 안목의 대입정책을 주도적으로 수립하고 한국교육의 대안을 제시할 대입정책팀을 입학본부에 신설했다. 대입정책팀은 근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대입제도에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조직으로, 서울대의 입학전형 연구와 기획을 넘어 미래지향적인 고교·대학 연계 입학정책의 비전과 대입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대입정책팀은 교육부, 시도 교육청,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및 교육전문가 집단과 긴밀한 업무 협조 체제를 모색해 폭넓은 소통 체제를 구축하고 국내외 교육 및 대입정책 관련 공동연구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해 교육전문가로서 서울대 안팎의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오세정 총장은 “세계 각 나라는 미래사회의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정책으로 지난 몇 년 사이 혁신적인 수준의 교육제도 개편을 이루었다. 특히 학습자상의 재정립에 중점을 두어 교육과정을 정비하고 대입제도를 개혁하고 있다. 한국의 교육도 단편적인 지식 습득에서 벗어나 학습자의 성장 중심 및 역량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개정하여 학교 교육에 변화를 이끌고 있으나 이에 부응하는 대입제도는 아직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서울대가 대입정책 연구에 리더십을 발휘하고자 하며 이번 신설하는 대입정책팀이 그 초석을 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기 입학식

2022학년도 전기 입학식이 지난 3월 2일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와 같이 서울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영상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입학식은 2022학년도 학부과정 3613명, 대학원 3599명, 총 7212명의 신입생을 대상으로 열렸다. 오세정 총장은 식사에서 “진취적인 도전 정신을 강조하는 이야기보다, 먼저 여러분의 어깨를 토닥이며 수고했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며, “서울대에서 배우고, 질문하고, 경계를 넘고, 함께 성장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축사를 맡은 교육스타트업 ‘에누마’ 창업자 이수인(95조소) 동문은 “대학생활을 통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마음을 길러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또한 “남들은 다 모르는데 당신만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질문하며 “언젠가 이 질문의 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대면수업 전환

2022학년도 1학기 대면 수업이 시작됐다. 본부는 개강 전 ‘수업 운영 관련 Q&A’를 공지하고 방역대책 가이드라인을 담은 카드뉴스를 제작 배포하는 등 대면 전환에 박차를 가했으나,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으로 대면 수업 양상에 변화와 혼란이 감지됐다. 우선 코로나19 확진 통보 방식이 바뀌었다. 이전에는 학생의 확진 사실이 학교에 통보되면 보건진료소가 이를 교수자에게 전달했으나, 최근에는 학생이 직접 교수자에게 연락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출석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대체 수업 제공이 제각각으로 이뤄지는 문제도 제기됐다.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이 연달아 있는 학생들은 비대면 수업을 들을 공간을 찾느라 어려움을 겪어, 학사과는 수업이 배정된 대면 강의실에서 비대면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각 단과대에 요청했다.

학생 542명 대선선거사무원 활동

지난 3월 9일에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서울대 학생 542명이 관악구 내 투표소 및 개표소 선거사무원으로 자원해 선거 진행을 도왔다. 작년 12월 말부터 관악구선관위의 요청에 따라 각 단과대 및 학과 홈페이지에서 선거사무원 추천을 안내했고, 지난 1월 13일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는 SNS를 통해 모집을 공지했다. 모집 인원은 약 100여명이었으나 하루 만에 300여명의 학생이 신청, 연석회의는 500명까지 추가할 수 있다는 관악구청 답변을 전달했고, 최종적으로 총 542명이 선거사무원으로 선발됐다. 모집 당시 공지에 따르면 근무시간은 오전5시-오후7시, 근무수당은 12~13만원이었으나 수당으로는 코로나19 확진자 투표 특별사례금이 더해져 약 27만원이 지급됐다. 하루 동안 선거사무원으로 일한 경험에 대해 학생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만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 체계가 불분명해 선거사무원들이 적절히 휴식하지 못한 투표소도 있었고, 코로나19 확진자 투표에 대해 선거사무원들의 감염 위험에 신경을 덜 쓰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의 목소리도 있었다.

4월부터 식대인상

지난 3월17일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2022년 제1차 생활협동조합 이사회 회의에서 식대조정(안)에 따르면, 현재 3000~6000원의 가격대인 세트메뉴는 1000원씩 인상된다. 자하연식당 3층을 제외한 생협 직영식당 6곳에 대해 학생 백반가격은 1000원으로 유지하되, 교직원 백반가격은 2200~3000원으로 인상된다. 생협분부는 올해 적자가 20억이 넘고, 평균 적자도 21억 정도 된다며 식대 인상 배경을 밝혔다. 또한 이날 휴점 중인 제3학생식당 4층과 학생회관 지하 식당의 추가 운영안에는 구인난 및 적자 문제로 인해 재개장에 반대 의견이 있었다. 한편 식대 조정은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2년 만에 열린 신입생 대면 행사

22학번 새내기 환영행사가 2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됐다. 코로나19로 대다수의 행사가 비대면으로 대체됐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2022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연석회의)와 모든 단과대가 신입생들을 위한 대면 행사를 마련했다. 연석회의는 지난 2월 23일 ‘2022 미리배움터’를 추진하며 여러 단과대 학생들이 소통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아이스브레이킹, 버킷리스트 작성, 캠퍼스 투어, 동아리 부스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새내기들이 친목을 다지고 학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구성됐다. 단과대별 새내기 맞이 행사 역시 대면으로 진행됐다. 행사에서는 동아리 공연과 다양한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대면 행사의 장점을 살렸다. 코로나19의 여파 속에도 연석회의와 각 단과대는 방역지침을 이행하며 안전하게 일정을 마무리했다.

제15회 중앙도서관 작은전시회<무無턱대고 평등한 지도>

기간 : 2022. 2.7-4.30 (07:00~23:00)

장소 : 중앙도서관 관정관 1층 관정갤러리

주관 : 서배공(서울대학교 배리어프리 보장을 위한 공동행동)

주최 :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눈(대표의원 김민석), 서울대 중앙도서관

문의 : 02)880-9374, libplan@snu.ac.kr

‘무無턱대고 평등한 지도’는 휠체어를 탄 손님도 접근할 수 있도록 가게 앞에 턱이 없거나 경사로를 설치해 둔 가게를 모아 제작한 지도를 의미한다. 2021년에 결성된 ‘서배공’은 서울대 인근 샴수길 상권 800여 곳의 배리어프리 정보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배리어프리맵 ‘샴수잡을지도’를 제작했다. 전시는 지도의 제작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

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함께 고민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기획되었다.

2022 규장각 특별기획전 <고지도로 본 서울>

기간 : 2022. 1.24-5.4 (평일 10:00~17:00)

장소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전시실 B1

문의 : 02-880-5318

국내 최대 고지도 소장기관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통칭 규장각)이 서울의 고지도를 주제로 특별전을 개최 중이다. 전시는 서울의 옛 모습이 담긴 다양한 고지도를 선보임으로써 서울의 어제와 오늘을 되새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전시 관람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규장각 홈페이지에서 예약할 수 있다. (<https://kyu.snu.ac.kr/exhibit/exhibit-reservelist/>)

서울대총동창회 소식



정기총회 및 관악대상 시상식

서울대총동창회(회장 이희범)는 지난 3월 28일 오후 5시 서울 삼성동 코엑스

3층 오디토리움 에서 2022년도 정기총회 및 제24회 관악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사전예약 동문 299명이 참석한 이날 총회에서 이희범(67전자공학)회장 후임으로 총동창회 상임부회장 김종섭(66사회복지) 스펀코·삼익악기그룹 회장이 제29대 총동창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임기는 4월 1일부터 2년이다. 서울대 총동창회 회원은 약 45만명이다. 신임 김종섭(◀사진) 회장은 1970년 문리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1979년 주식회사 스펀코를 창업, 2002년에 삼익악기주식회사를 인수했다. 또한 대한적십자사 부총재, 코피온 총재를 지내면서 사회봉사활동을 펼쳐왔으며, 적십자와 서울대 장학사업 등에 140여억원을 기부했다.

전임 이희범 회장은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렸던 지난 2년 동안 총동창회장직을 맡아 동창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했으며, 특히 사회공헌위원회와 관악경제인회를 발족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했다. 이회장은 산자부 장관,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무역협회 회장, 경총 회장, 서울산업대 총장 등을 역임한 바있다. 한편 이날 관악대상 수상자로 총동창회 관악대상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인규)가 심의 선정한 김인중(59회화) 파리 도미니크 수도회 사제를 비롯해 이순재(54철학) 배우 겸 가천대 석좌교수, 박용호(74수의학) 서울대 수의대 명예교수, 이미경(77가정관리) CJ그룹 부회장 등을 시상했다.

- 참가비 계좌 : 신한은행 140-013-055887 예금주 서울대학교총동창회
- * 입금 시 성함과 입학연도를 같이 표기 바랍니다.

4월 조찬포럼

- 일 시 : 4월 14일 (목) 오전 7시 30분
- 장 소 : 플라자호텔 4층 메이플홀 (서울시청 앞)
- 강 연 자 : 권영걸 서울디자인재단 이사장, 서울예고 교장
- 주 제 : 문화강국의 길
- 참가인원 : 50명 이내(선착순)
- 참 가 비 : 5만원 / 연간 40만원 (조찬 및 도서 제공)
- 참가비 계좌 : 신한은행 140-013-055991 예금주 서울대학교총동창회
- * 입금 시 성함과 입학연도를 같이 표기 바랍니다.

4월 등산대회

- 일 시 : 4월 23일 (토) 오전 10시
- 장 소 : 북한산 둘레길 8구간 (불광역>진관사)
- 참 가 비 : 2만원 (중식 및 기념품 제공)
- 참가비 계좌 : 신한은행 140-013-055887 예금주 서울대학교총동창회
- * 입금 시 성함과 입학연도를 같이 표기 바랍니다.

4월 수요특강

- 일 시 : 4월 27일 (수) 오전 7시 30분
- 장 소 : SNU 장학빌딩 2층 베리타스홀 (공덕역 8번 출구)
- 강 연 자 : 조영달 서울대 사범대학 교수
- 주 제 : 대한민국 다시 위대하게: 제2한강의 기적
- 참가인원 : 50명 이내(선착순)
- 신청기간 : 4월 1일 ~ 선착순 마감까지
- 참 가 비 : 무료 (생수 및 도서 제공)

참가신청 [성함, 단과대학(과정명), 휴대전화번호 기재]
문자1877-2039(전화수신불가), 팩스02-703-0755,
이메일 member@snu.or.kr

서울대학교총동창회

미술아카데미

기간 : 4월 20일(수) ~ 6월15일 (수)

장소 : SNU장학빌딩 2층 베리타스홀 (공덕역 8번 출구)

일정 및 강연자

날짜	시간	강사	주제
4/20(수)	15:00~17:00	심상용 (서울대 미술관장)	한국 현대미술
4/27(수)	15:00~17:00		
5/4(수)	15:00~17:00	최혜원 (건국대 겸임교수)	미술 후원의 역사
5/11(수)	15:00~17:00		
5/18(수)	13:00~15:00	손영옥 (국민일보 문화전문기자)	미술품 투자
5/25(수)	13:00~15:00		
6/8(수)	15:00~17:00	이연식 (미술사가)	위작과 모작
6/15(수)	15:00~17:00		

모집인원 : 50명 이내(선착순)

미술아카데미

- 기간 : 4월 20일 (수) ~ 6월 15일 (수)
- 장소 : SNU장학빌딩 2층 베리타스홀 (공덕역 8번 출구)
- 강연자 및 주제 :
 - 심상용(81회화·모교 미술관장) <한국 현대미술>
 - 최혜원(89동양·건국대 미술교육전공 겸임교수) <미술 후원의 역사>
 - 손영옥(박사11미술경영·국민일보 부국장, 문화전문기자) <미술품 투자>
 - 이연식(90서양·미술사가) <위작과 모작>
- 모집인원 : 50명 이내(선착순)
- 신청기간 : 3월 10일 ~ 선착순 마감까지
- 참가비 : 10만원(총8회)

회비납부안내

정성껏 내주신 회비와 찬조금은 동창회와 동문들을 위해 소중하고 투명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연회비	회원	3만원(평생회비30만원)
	임원	회장 100만원
		부회장 30만원
		이사 10만원
찬조금		상시 환영

납부계좌 : 농협 301-0252-4434-51 권영걸(서울대미대동창회)
회비납부시 성명·학번·학과를 명시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총동창회비는 별개이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회비입금내역(2.25-3.31)

일 반 회비 김영희(65회화) 김원세(58회화) 김현지(88동양) 김형주(66회화) 민재영(86동양) 박도현(16디자) 박영구(84서양) 박재은(63회화) 박한진(57회화) 백혜란(70회화) 손은신(82응미) 이길원(69회화) 이병석(58회화) 이부연(71응미) 이수경(78회화) 이용규(82회화) 이종석(92동양) 이학영(52회화) 장봉윤(72회화) 정승영(99동양) 조혜은(97서양) 최국강(62응미) 최영일(72회화) 최희권(58응미) 한석란(71조소) 한은선(89동양) 한현정(08동양)

평 생 회비 한정미(97동양)
부회장 회비 변영혜(78회화)
이 사 회비 이은숙(81회화)
광고 후원금 한울회 300,000원

동창회 SNS로 소식을 전하세요



330

게시물

749

팔로워

95

팔로잉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창회
전시제보 및 문의 snuarta@naver.com
snuart.or.kr/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창회 >
밴드명 공개 · 멤버 523 · 초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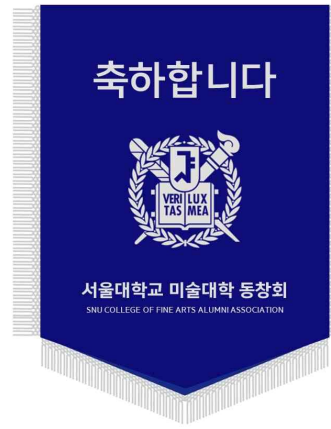
글쓰기

본회는 회원과의 소통을 위하여 **네이버밴드·인스타그램** 등 SNS계정(명칭/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창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창회 소식 및 공지사항, 동문동정 등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밴드에는 전시, 행사, 애경사를 직접 올려 알리실 수 있습니다. 가입시 회원인증을 위해 ID를 실명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ID예:김홍도(98동양)

소식지를 휴대폰으로

본회는 매월 온라인소식지 E-NEWS를 발간해 메일로 발송합니다. 휴대폰에 메일 어플리케이션(네이버메일, 다음메일 등)을 설치하시면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소식지를 통해 전시, 행사나 경조사 등을 알리고 싶으신 동문께서는 동창회메일(snuarta@naver.com)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회는 홈페이지와 소식지에 비즈코너를 마련해 동문들의 사업체를 소개해 선후배간 도움을 나누고자 하오니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신 동문께서는 동창회메일(snuarta@naver.com)로 성명(학번.학과), 사업체 명칭과 소개글, 이미지, 연락처, 홈페이지 주소 등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축하기·근조기 안내



회원 및 회원가족의 결혼, 상 등 경조사시 축하하기나 근조기를 보내드리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축하기와 근조기는 모든 회원께 무상 제공해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나 아직은 동창회 재원부족으로 당사자가 본인인 경우 외에는 요청하시는 회원께 배송비(지정업체 위탁)를 받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신청전화: 02-555-1946

광고협찬안내

본지 E-NEWS 광고를 통해 사업체 또는 단체, 개인의 홍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찬해 주시는 광고료는 후원금으로 처리되며 E-NEWS 발간 및 본회 사업을 위해 쓰이게 됩니다

- 회 지 명 : 서울대미대동창회 E-NEWS
- 발행방식 : 이메일 발송, SNS업로드(인스타그램, 밴드)
- 광고마감 : 매월 20일
- 발 행 일 : 매월 말일
- 판 형 : A3(국배판) 297x420mm
- 연락처 및 이메일 : 02-555-1946, snuarta@naver.com

규격	광고료
전면	50만원
1/2면	30만원
1/3면	20만원
1/5면	10만원



국내최초 품격 작품포장 **D-Pack의 시대가 열렸다**

‘10kg이상 중량작품 포장가능’
‘박스는 100호까지 자유로이 맞춤제작’

작품의 운송과 보관을 위한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박스 D-Pack이 출시됐다. 2019 글로벌아트페어싱가폴(대회장 권영걸)의 국내외 전체 작품운송을 책임졌던 이한호 대청해운 대표가 삼십여년의 대형 글로벌 운송경험을 바탕으로 작품포장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새롭게 개발한 제품이다. D-Pack은 플라스틱 소재의 포장박스로, 그동안 사용되어왔던 종이박스를 대체할 품격과 안전성, 내구성을 갖추었다. 또한 합리적인 가격과 맞춤제작 서비스를 제공하며 100호 이상의 대형작품도 가능하다.
연락처 : 02-783-7080

여성동문회 한울회는 지난 2월7일 줌으로 진행한 비대면 총회에서 부회장 이부연(71응미)동문을 제 20대 회장으로 추대했다. 앞으로 2년간(2022-2023) 한울회를 이끌어 갈 신임 이회장은 1971~77 모교 응용미술과 학사 및 동 대학원 공예전공 석사, 1977~83 미국 미주리대학교 Ph.D(미술교육전공)을 취득했으며 한국 미술교육전공 최초의 박사 취득자이다. 1974~2022 대한민국디자인대전 연 3회(9회~11회) 특선 심사위원을 역임했으며 개인전 13회를 개최했다. 2012~2021 홍콩, 터키, 오스트레일리

아, 중국, 오스트리아, 에스토니아, 영국, 네덜란드, 독일, 벨기에-한국 국제초대전 준비위원장과 2020~2021 터키, 중국 온라인 국제초대전 준비위원장을 역임하였다. 2018 대한민국 근정훈장, 2014 교육부장관 표창,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 2012 서울시장 표창을 수상했다. 현재 한양대학교 명예교수, 서울사이버대학교 석좌교수, 한국국제미술교육학회 고문, 교육부 미술과 교육과정 심의위원, 대한민국 디자인대전 초대작가, ICA정회원이다.

취임소감



부족한 저를 한울회 회장으로 추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울회는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을 졸업한 여성동문회이며 1980년 발족되어 45회의 전시회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본회는 전업작가, 교수, 교사, 미술관련 기업가, 미술관운영자등 미술이라는 공통된 전공을 통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여성 동문들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여성으로서 전문인으로 활동한다는 어려움 속에서도 각자 안팎으로 최선을 다해오셨던 역전의 용사들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회의 회원들은 선후배 간 함께하며 뭉쳐있어 서로 공감하면서 서로 힘을 북돋우면서 사랑과 존경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선배님들의 작품과 학문을 향한 열정과 모범된 모습은 후배들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으며 후배들의 멘토로 이끌어주시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후배들은 신선한 아이디어와 새로움의 추구로 선배들에게 새시대의 모습을 소개하며 이끌어 주고 있음은 어느 모임에서 볼 수 없는 전문가로서의 협동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선후배 간 각자의 전공을 통한 전문가로서의 논의와 나눔은 한울회의 발전뿐만 아니라 개인의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선후배 간 사랑과 존경의 모습으로 각자의 전공을 통한 최고의 전문가적인 모습으로 한국의 미술의 발전과 여성의 발전 나아가 세계의 선도적인 모습으로 함께 발전해 나아가길 희망합니다.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여성동문회 한울회를 위해 봉사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지금까지 어느 여성단체보다 가장 우수한 인재들의 모임인 한울회의 계승 발전을 위해 저도 최선을 다해보고자 합니다. 42년전 선배님들께서는 한

울회를 발족하시고 매년 한 해도 빠짐없이 정기전을 개최해 오셨으며 해외교류전, 특별전, 학술발표, 스케치 여행 등으로 한울회를 이끌어주셨습니다. 2022년도 정기전은 가나인사아트센터 2층 전시장에서 8월31일(수)~9월6일(화) 가질 예정입니다. 2022년을 맞아 아래의 새로운 사업을 추진합니다. 첫째, 홈페이지를 구축합니다. 해외에서나 국내에서 회원의 작품과 이력을 볼 수 있도록 회원 각자의 홈페이지로도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회원증대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청년회원들의 영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본회의 평균 연령층이 젊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2022년 한해에 한해 많은 회원의 참여를 바라며 신입회원의 입회비를 면제하며 출생년도 73년 이후 동문에게는 입회비와 전시회비를 면제하기로 결정하였으니 많은 동문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셋째, 한울회 기금과 장학금모금을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서울대학교 미술대학과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들중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힘을 얻고 발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조그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후배 학부생들과 대학원 학생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선한 영향력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칫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현실에 좌절과 방황하는 시간을 긍정적인 계획의 시간으로 바꾸기 위해 선배님들의 활동과 업적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학생들이 미래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하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특강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서 가져보고자 합니다. 2022~23 한울회 신입회장으로 선배님들께서 아름답고 멋지게 이끌어주신 일들을 잘 이어가야 하겠으며 새시대를 향한 발전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울회 회장 이부연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여성동문회인 한울회는 1980년 서울 관훈미술관에서의 창립전을 시작으로 2021년 한전아트센터 갤러리까지 45회에 이르는 정기전을 매년 열어 왔습니다. 한울회전은 예술의전당, 한국문예진흥원, 세종문화회관, 조선일보미술관, 가나인사아트센터등 국내 유

수의 미술관에서 정기전을 열었습니다. 또한 파리 프랑스한국문화원, 인도 뉴델리, 도쿄 주일한국문화센터 등에서 해외초대전을 열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원 외 전국 유수의 전시관들에서의 국내 초대전을 열었습니다. 정기전, 특별전, 해외초대전, 학술발표, 온라인전등 미술 전공자들의 활발한 활동의 장이 되었으며 앞으로 더욱 발전하고자 합니다. 한울회란 명칭은 큰 울타리란 뜻으로, 이 안에서 미대 여성동문들이 매년 작품발표를 함께하며 선후배 동문간의 세대교류와 화합의 장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한울회는 서울대미대 출신 여성동문작가들의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울회는 49학번부터 2000년대 학번까지 현재 130여명의

여성 선후배 회원들이 서양화, 한국화, 공예, 도자기, 디자인, 조소, 미디어미술까지, 비구상과 구상미술, 설치미술 등 거의 모든 장르에 걸쳐 국내외에서 활발히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의 작품에는 서울대미대에서 수학적 아카데미즘과 거칠 것 없는 창조정신과 삶에서 터득한 깊은 내면의 사유가 배어 있습니다. 서울대미대는 개교 이래 수많은 미술인재를 양성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울회에는 유명 원로, 중견작가들을 포함해 국내외에서 후학을 양성하는 교수, 갤러리 대표, 문화계 종사자등 미술계를 선도하는 많은 여성 인재들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울회는 좀 더 젊은 후배들과 함께 미래를 향한 힘찬 동행을 하며 그 맥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여성동문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한울회 2022년 신입회원 모집

- 1) 입회하시는 동문들께 2022년 1년간에 한해 입회비 면제
- 2) 1973년생 이하 동문의 입회 경우 전시회비도 2022년 1년간에 한해 면제

입회 문의 : adela216@daum.net
010-3890-0556(사무국장)

HANWOOL
ARTISTS
ASSOCIATION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여성동문회

별세 조영동(53회화/1933-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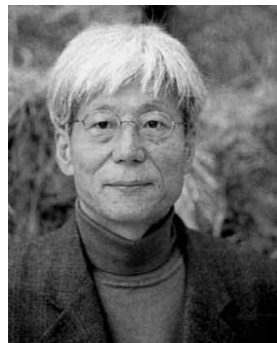


서양화가 조영동 동문이 지난 3월 1일 별세했다. 향년 89세. 1933년 충북 음성에서 태어난 고인은 1957년 모교 졸업 후 1983년 동국대 교육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했다. 1957년 논산 대건고 교사를 시작으로 교육계에 몸담은 조동문은 1973년 미국 휴스턴대 객원교수, 공주교대 교수를 지낸 후 1984년부터 성신여대 교수로 재

직하다 정년퇴임했다.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운영 위원, 충북.충남.경남.전북.강원 도전과 원미전.전국노동자협회미전.전국교도소미전 심사위원을 역임했다. 또한 한국미협 자문위원, 서울미협 고문을 지냈으며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했다. 1982 인도트리엔날레, 1986 한국현대미술대전 어제와 오늘전, 1995~97 서울미술대전 등에 참여했고 개인전 13회를 열었다. 평생 추상화에 매진했으며, 노년에는 종교적인 주제에 집중한 조동문은 '영원의 모습전', '불교.개신교.천주교연합전', 'SIAC국제가톨릭미술전'(로마) 개최 등 가톨릭미술 발전을 위한 공로로 2015 가톨릭미술상 특별상을 수상했다.

별세 성완경(64회화)

민중미술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한 미술평론가 성완경 동문이 지난 3월 18일 별세했다. 향년 78세. 1944년에 태어난 성동문은 모교 회화과 졸업 후 동 대학원을 수료했다. 이후 프랑스 유학길에 올라 파리국립고등장식미술학교에서 석사를 마치고 파리제8대학 조형예술학부에서 수학했다. 고인은 1979년 유홍준, 윤범모, 오윤 등과 함께 미술그룹 '현실과 발언'을 창립해 민중미술 운동에 앞장 섰다. 1982년부터는 인하대학교 미술교육과에서 후학을 양성하면서



광주비엔날레국제전 커미셔너,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 등 전시기획자로도 일했다. 그는 만화 분야에도 관심을 두고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회장, 부천만화정보센터 이사장, 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 조직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또한 대한민국 환경문화상을 수상했으며, 저서로는 '레제와 기계시대의 미학' '민중미술을 향하여-현실과 발언 10년사' '민중미술 모더니즘 시각문화-새로운 현대를 위한 성찰' '성완경의 세계만화탐험' 등을 남겼다.

워크숍 서동희(66응미)

서동희 동문이 지난 2월 18일 미국 뉴욕시립대학교 시티칼리지에서 워크숍을 개최했다. 서동문은 지난 1월 25일~2월 28일 뉴욕 방문 기간 중 시티칼리지 초빙으로 도자예술 수업시간에 워크숍을 진행, 와이어를 이용한 성형기법을 시범제작 하였고 학생들은 즉시 따라하며 자신의 작업에 응용하는 등 큰 호응을 보였다. 이 시간의 주임교수 Sylvia Netzer는 1976년 미국 알프레드대학교 써머스쿨에서 서동문과 같이 공부한 동창으로 46년간 같은 도자예술의 길



을 걸어오며 친분을 이어왔다. 2003-04년 서동문이 시티칼리지의 객원교수로서 활동한 것도 Sylvia Netzer 교수(사진 오른쪽)의 지원하에 이루어졌다. 서동문은 미술학과 학사와 동 대학원 미술학석사, 캔자스대학교 대학원 미술학석사, 미주리대학교 대학원 미술교육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10년 세계인명사전 미국 마르퀴즈 후즈후인더월드에 등재, 국제인명센터(IBC) 세계100대교육자에 선정됐으며 현재 건국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 명예교수이다.

쌍계사부도탑 제작 최인수(66조소)



모교 명예교수 최인수 동문이 지난 3월 8일 쌍계사에 부도탑을 제작해 봉안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과 전계대화상, 쌍계총림 방장을 지낸 고산스님의 열반 1주기를 앞두고 효상좌들이 대중사를 추모하고자 조성된 부도탑은 쌍계사 창건이념인 선교율과 쌍계사를 상징하는 차, 불교음악 범패(梵唄)를 바탕으로 고산스

님의 견고한 성품과 강한 의지력을 형상화했다. 지난 3월 13일 열린 제막식에는 스님과 신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으며 해금 연주자이자 음악감독인 강은일의 추모 공연도 열렸다. 이날 제막된 부도 이름도 고산스님의 정신을 기려 불식촌음으로 정했다. 황지우 시인은 헌시를 통해 "당신의 귀를 지나갔던 지리산 쌍계사의 물소리여, 그 물로 달인 차 한 잔, 달빛 묻은 문고리 당겨스님 방에 넣어드리고 싶네"라고 추모했다. 고산스님의 만상좌이자 쌍계사 주지 영담스님은 "앞으로 부도전을 정비하고 쌍계사에서 은사가 쓰시던 방을 기념관으로 조성할 계획"이라며 "세상에 힘든 일이 많은데 한순간도 헛되이 쓰지 말라던 가르침을 따르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태극권 고수 김사환(85서양)



김사환 동문은 태극권 고수다. 무림 강호에 그의 이름 석자를 대면 알만한 사람만은 다 아는 무림인이다. 어려서부터 운동을 좋아해서 고등학생때 쿵푸 4단이 됐다. 7년간 수련한 끝에 우슈태극권 충북도 대표로 6년 동안 대회에 나갔고 전국체전 4등도 차지했다. 최근 북경 무술협회 팔괘장분과 코치 자격증도 취득했으며,

가끔 제자 되기를 청하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김동문의 작업실 낙안재에서 태극권 강의를 하기도 한다. 그의 스승은 북경의 왕즈핑(王志平)이며 국내 스승은 대구의 박성주 대사부로 한국에 태극권을 들여온 이다. 김동문은 "태극권은 내 생각과 몸을 운동을 통해 조절하는 무예로, 남을 치는 상해의 운동이 아닌, 서로를 느끼는 무술, 그 과정에서 내 중심을 찾아가는 것"이라며 태극권을 수련하면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고 스트레칭 개념이 강해 근력이 부드럽게 증가하고 혈행(血行)을 느슨하게 풀어준다고 한다. '게으르게' 할 수 있는 운동으로 현대인들의 건강에 최고라며, 태극권과 그림은 사고 발상의 폭넓음과 자유로움까지 빼닮았다고 한다.

클라우드펀딩 460% 전승일(85서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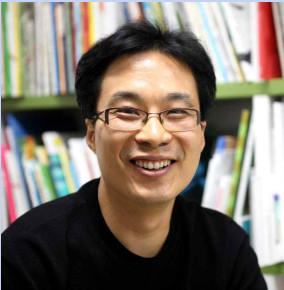
1990년대 후반부터 독립 애니메이션 분야에서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전승일 동문의 5.18민주화운동 애니메이션 '운동화 비행기' 프로젝트가 56일의 텀블벅 클라우드펀딩 기간을 거쳐 성황리에 후원이 이루어졌다. 텀블벅 클라우드펀딩으로 모인 후원금은 목표 금액 900만원의 460%에 달하는 41,406,000원으로, 총 206명이 후원하였다. 약 6개월의 제작기간을 거쳐 오는 8월 완성

예정인 애니메이션 '운동화 비행기'는 5.18민주화운동을 직접 겪은 홍성담 화백의 그림책 '운동화 비행기'를 원작으로 하는 작품으로 신군부의 폭력에 맞서며 가진 것을 함께 나누었던 시민들의 헌신적 연대와 대동정신을 강조한다. 전동문은 모교 졸업 후 애니메이션과 과학융합예술 분야에서 창작 및 저술 활동을 하고 있으며, 30여회의 오토마타.키네틱 아트 관련 전시를 했다. HD 애니메이션 '하늘나무'(2003), 5.18민주화운동 애니메이션 '오월상생'(2007), MOT 노래 'Cold Blood'(2004) 뮤직비디오 애니메이션, 예산죽애니메이션프로젝트(제천국제음악영화제 지원작),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금정굴이야기'(2021) 등을 연출 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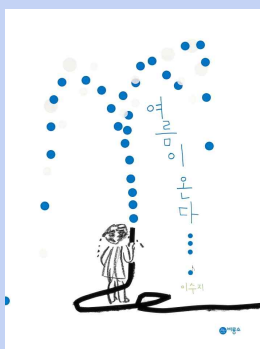
볼로냐 라가치상 수상 이수지(92서양), 최덕규(93서양)



그림책 작가 이수지 동문(◀위사진)과 최덕규 동문(◀아래사진)이 세계적 권위의 어린이도서상인 볼로냐 라가치상의 올해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지난 2월 22일 이동문의 그림책 '여름이 온다'는 볼로냐 라가치상 픽션 부문에, 최동문의 그림책 '커다란 손'은 논픽션 부문에서 스페셜 멘션(특별언급)에 선정됐다. 볼로냐 라가치상은 매년 3월 이탈리아 국제어린이책도서전 볼로냐도서전에서 우수한 어린이책과 그림책에 시상하는 상으로, 올해는 61개국에서 2215건의 작품이 출품됐다. 픽션, 논픽션, 뉴 호라이즌, 오페라 프리마, 코믹스, 특별 부문 등 6개 부문으로 나뉘어 작품을 선정한다. 각 부문별로 대상과 우수상에 해당하는 특별언급(Special Mentions)을 선정한다.



픽션부문을 수상한 이수지 동문의 '여름이 온다'(◀사진)는 여름철 아이들의 물놀이 모습을 생동감 넘치는 드로잉과 콜라주 등 다양한 기법으로 표현한 글 없는 그림책이다. 비발디 '사계'의 '여름'에서 모티프를 따와 책 전체가 총 3악장으로 구성돼 있다. 책에는 '사계'를 들을 수 있는 QR코드가 실려 있어 음악과 함께 감상할 수 있다. 이동문은 지난해 중국 작가 차오원



쉬엔의 글에 그림을 그린 '우로마'로 같은 부문 특별 언급에 선정된 바 있어 2년 연속 수상자가 됐다. 모교 서양화과를 졸업한 이동문은 해외에서 더 유명한 작가로서 내는 책마다 해외에서도 출간되며 전시회도 국내외에서 열린다. 16개국에서 출간된 '파도야 놀자'를 비롯해 '그림자 놀이' '이상의 나라의 엘리스' '강이' 등 예술성 높은 그림책으로 호평 받고 있다.



논픽션부문을 수상한 최덕규 동문의 '커다란 손'(◀사진)은 아버지의 손이 전하는 애뜻한 사랑을 담은 그림책이다. 아버지의 돌봄으로 자라 어른이 된 아들이 늙어가는 아버지를 돌보는 이야기를 담았다. 최동문은 이 책을 2020년 독립출판으로 출간해 출판사 자체 온라인 스토어에서만 판매했다. 하지만 입소문을 타고 국제적인 도서상의 수상까지 이뤄냈다. 최동문은 모교에서 서양화를 전공했으며 만화책 '여름이네 육아일기', 그림책 '나는 괴물이다', '우리 집에 배추흰나비가 살아야' 등을 펴냈다.

안데르센상 수상 이수지(92서양)

한편 이수지 동문은 지난 3월 21일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열린 국제아동도서전 개막식에서 '아동문학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상 일러스트레이터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국 작가가 안데르센상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데르센상은 덴마크의 동화작가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을 기념하기 위해 1956년 제정된 상으로, 현존하는 작가 중 아동문학에 큰 공헌을 했다고 평가되는 작가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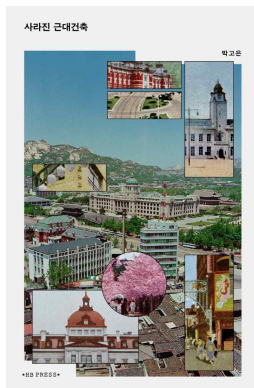
행복은 어디에나 있어 염혜원(95서양)



'행복은 어디에나 있어'는 볼로냐 라가치상, 에즈라 잭 키츠상, 샬롯 졸로토상, 미국 아시아태평양도서관사서협회 선정 문학상 등 유수의 그림책상을 수상한 염혜원 동문의 그림과 오랜 시간 '타임', '에스콰이어' 편집자이자 저널리스트로 활동한 작가 브루스 핸디의 문장으로 '행복'을 이야기하는 그림책이다. 염동문은 모

교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판화를 공부했으며, 뉴욕 스크올브비 주얼아트에서 일러스트레이션을 공부했다. 지금은 브루클린에 살면서 그림책 작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어젯밤에 뭐했나?'로 볼로냐 라가치 픽션부문 우수상을, '야호! 오늘은 유치원 가는 날'로 에즈라 잭 키츠상을, '물웅덩이로 참방!'으로 미국 아시아태평양도서관사서협회 선정 문학상(APALA)을, '수영장 가는 날'로 샬롯 졸로토상을 받았다. 그 밖에 쓰고 그린 책으로 '쌍둥이는 너무 좋아', '우리는 쌍둥이 언니'가 있고, '나는 자라요', '너무너무 무서울 때 읽는 책'에 그림을 그렸다.

사라진 근대 건축 박고은(06디자인)



박고은 동문의 책, '사라진 근대 건축'은 도시에서 사라진 근대라는 시간층을 건축물을 매개로 채워 보고자 한다. 한 시대를 상징했던 건축물은 물리적으로 사라진 뒤에도 살아남아 이야기를 전한다. 책의 1장 '지워진 건축, 일제 식민시대'는 조선총독부 청사가 어떻게 우리 근현대사와 함께하다 사라졌는지 주요 모습들을 시간 순으로 따라가 본다. 또한 남산에 있었던 조선신궁을 비롯한 일본 신사들의 과거와 현재를 알아보았다. 일본인이 세워

운영했던 소공동 반도호텔의 영락 또한 극적이다. 2장 '파괴된 건축, 한국전쟁과 서울 요새화 계획'은 전쟁 중 도시의 파괴, 그리고 전후 서울 요새화 계획으로 급히 건설된 남산터널과 을지로 지하보도, 남산타워, 북악스카이웨이, 잠수교 등을 돌아본다. 3장은 '숨겨진 건축, 즉 군사정권기 '발전국가'를 지향하며 건설된 세운상가를 비롯한 도시 개발, 그리고 폭력으로 얼룩진 국가기관인 중앙정보부를 재조명한다. 박동문은 모교 졸업 후 네덜란드 디자인아카데미 아인트호벤에서 인포메이션디자인을 전공했다. 현재 그래픽디자인스튜디오 MERCURIAL을 운영하며 대학에서 디자인을 강의한다. 건축전공은 아니나 사라져 가는 근현대건축을 아카이브하고 시각화하는 건 디자이너의 일이라 생각해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무암 프로덕션 대표 현해리(08동양)



'젊은 것들이 해냅니다'라는 문구는 현해리 동문이 창업한 무암 프로덕션의 사훈이다. 업력 1년차에 직원 10명이 채 안 되는 작은 회사지만, 통일부와 국방부, LG, 메르세데스 벤츠 등 굵직한 고객사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연매출 10억 원을 달성했다. 지난해에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가수 유빈, 래퍼 래원, 치타와 일반인 출신 래퍼가 참여한 힙합 싸이퍼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김리을 한복디자이너와 이규석 작가, 김준희 피아니스트, 서

도밴드와 함께 아트필름을 제작하는 등 기존 공식을 벗어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한편 무암 프로덕션을 이끄는 현동문은 모교 졸업 후 방송국 공채 PD, 삼성 계열 금융사의 홍보팀 PD 출신이라는 이력을 바탕으로 창업에 나섰다. 그동안 진행한 '피-쓰, 내 소원은 평화', 'UN PKO 푸른 베레모를 쓴 작은 영웅' 등의 프로젝트를 위해 갤러리스트 출신의 아트디렉터를 섭외하거나, 스토리텔링을 위해 언더그라운드 래퍼와의 협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또한 무암 프로덕션은 현재의 방송·광고제작 외에도 자체 오리지널 웹 드라마제작까지 기획하고 있다. 이는 OTT시장에 특화된 숏폼 콘텐츠가 장기적으로 큰 잠재력을 가졌다는 전망에 기반한 것이다. 독립 제작사로서 자체 제작역량을 더욱 끌어올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현동문의 포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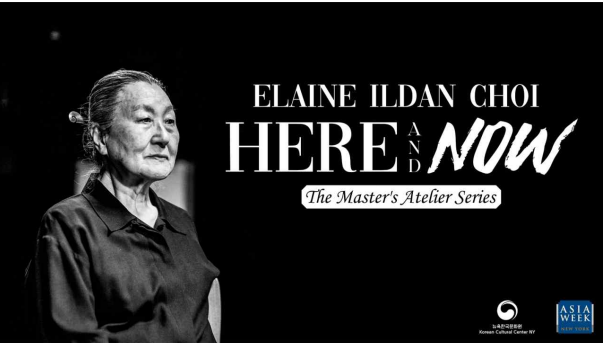
도블60주기념 ‘새로운 세상을 향해...’ 방혜자(56회화)



해외문화홍보원(원장 박명순)과 주프랑스한국문화원(원장 전해웅)은 '빛의 화가로 알려진 방혜자 동문의 도블 60주년 기념 특별전을 3월 2일부터 4월 29일까지 주프랑스한국문화원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일평생 빛에 대한 탐구에 몰두한 방동문의 작품세계를 재조명하고, 빛의 아름다움을 회화, 조각, 스테인드글라스와 같은 여러 형태로 재현한 작품 등 신작 10여 점을 포함한 총 40여 점을 선보인다. 특히 이번

전시는 프랑스 국보인 샤르트르 대성당 종교 참사 회의실에 방동문의 스테인드글라스 작품이 설치되는 시기에 함께 진행되어 더욱 의미가 깊다. 60여 년간 한국과 프랑스를 오가며 활발한 작업을 펼친 방동문은 파리 세르누치박물관 등 국내외 유수의 미술관을 비롯해 세계 각지에서 100회가 넘는 전시를 개최하며 한국을 대표하는 현대 미술가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2012년에는 프랑스 미술계에 한국의 예술을 널리 알리고, 한·불 문화 교류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돼 한불문화상을 받기도 했다. 팔순을 넘긴 지금까지 끊임 없이 빛을 탐구하는 방동문은 "빛을 한 점 한 점 그려내어 평화와 기쁨을 심는 씨앗이라고 생각하며 그린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많은 관객이 빛과 희망의 메시지를 얻어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HERE AND NOW 최일단(56조소)



주뉴욕한국문화원이 지난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최일단 동문의 삶과 예술 세계를 조명하는 특별전을 온라인으로 열었다. 최동문은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을 겪고, 파리와 뉴욕에서 현대미

술의 최일선에 섰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작가다. 1936년 서울에서 태어나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으며 성장한 최동문은 모교 졸업 후 약 10년간 교편생활을 하다 베트남으로 이주했고, 베트남전을 겪었다. 1972년부터 3년간은 프랑스 파리에서 이응노 화백에게 동양화를 배웠다. 1975년 뉴욕으로 이주한 후 지금까지 뉴욕을 주 무대로 활동하고 있다. 1986년 만 50세가 되던 해에는 동양화에 대한 열정으로 한국인 최초로 중국 북경 중앙미술학원 유학길에 올랐으며, 1991년에는 유학 중에 중국의 고대 유적지를 탐방하고 기록한 기행문을 2천여 장의 사진과 2백여 점의 드로잉 포함된 '최일단 발바닥 문화예술기행 정, 중, 동'이라는 총 세 권의 책으로 발간하기도 했다.

개인전 홍선애(Sunny H. Kim62회화)

홍선애 동문의 개인전이 캘리포니아주 공아트갤러리에서 3월 5일부터 3월 31일까지, 태그갤러리에서 3월 16일에서부터 4월 9일까지 열린다. 칼세이건의 '코스모스'에서 영감을 받아 도전한 '우주의 꿈' 시리즈는 무한한 우주를 대형 화폭에 표현한 회화 작품들이다. 홍동문은 "작품이 추상적으로 보이지만 드넓은 우주 형상을 작은 캔버스 안에 표현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며 "캔버스 안에 천제의 움직임의 색상으로 표현하고 상징화했고, 혼돈과 질서가 공존하는 모습은 나 자신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한편 홍동문은 모교 졸업 후



뉴욕 파슨스와 LA의 FIDM에서 수학하였고, 한국과 뉴욕LA 등지서 개인전 26회, 그룹전 60회 이상을 개최했다. 1972년 국제 그래픽디자인 쇼에 출품한 작품으로 디자인 공모전 Creativity 1972 상을 받았고 LA 백텔 아트페스티벌에서 음양의 조화를 표현한 작품으로 대상을 수상했다. 1984년 LA올림픽 당시 공식 사진작가로 활동했으며 그래픽 디자인으로 뉴욕 폴레브르 어워드를 수상했다. 2014년 LA 서울대 미대 동창회 회장을 역임했고 2017년 LA한인상공회의소 예술상을 받았다.

기증작품전 한운성(65회화)

한운성 동문이 기증한 작품을 바탕으로 기획된 '한운성 기증작품전'이 3월 18일부터 5월 22일까지 전북도립미술관에서 열린다. 한동문은 지난 2021년 국립현대미술관을 비롯하여 서울시립미술관, 대구미술관, 부산시립미술관, 청주시립미술관 등 지역미술관에 총 350점을 기증하였고 그 중 전북도립미술관에서는 132점의 수집(구입 1점, 기증 131점)이 이루어졌다. 이번 전시에서는 1970년대 초기작부터 최근작까지, 약 50년의 작품세계를 조망하고 드로잉/판



화/회화 작품으로 구분하여 전시한다. 1전시실에 '영상 아카이브', 2전시실에 '초기작 회화'와 '매듭', '상황', '과일' 연작, 3전시실에 '드로잉'과 '판화'연작, 4전시실에 '디지털로그', '꽃' 연작을 선보인다. 한편 한동문은 모교 회화와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였고, 템플대학교 타일러미술대학원 판화과를 졸업하였다. 1982년부터 2012년까지 모교 교수를 역임했다. 1981년 서울국제판화비엔날레 대상, 1980년 공간미술대상전 우수상, 동아미술제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GREEN DAYS 최명애(70회화)

최명애 동문의 개인전이 2월 23일부터 3월 23일까지 갤러리조은에서 열렸다. 코로나 시대로 황폐해진 삶을 숲에서 치유 받은 작가는 '위로'라는 주제를 특유의 조형 언어로 풀어냈다. 봄의 싱그러움과 생명성을 담은 '빛과 색'부터, 일필휘지의 드로잉으로 포착한 꽃과 식물들, 갤러리 벽면 전체를 뒤덮는 대형 숲까지, 다채롭게 구성된 약 25점의 신작들이 전시되었다. 최동문은 매일 거니는 뒤뜰의 자연과 자주 오르내리는 관악산 숲의 아름다움이 개인적 경험에



머물지 않고 주위 모든 사람으로 확장되고 공유되길 원한다. 최동문은 1990년 개인전에서 불안정한 사회적 정치적 기류가 대세였던 당시 예술의 사회적 기능을 고민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림이 지닌 '함'에 한계를 느껴 미술의 본래 역할에 대해 고민하다 32년 만에 자연을 그려낸 작품으로 돌아왔다. 최동문에게 그림은 삶의 시적 표현이다. 다양한 미적 즐거움을 주고 가슴을 뛰게 하는 작품을 남기고 싶다는 그는 그동안의 공백을 채우듯 매일 선을 긋고 칠한다.

Flower No Flower-꽃이 피다! 안영나(80회화)

안영나 동문의 제30회 개인전 'Flower No Flower-꽃이 피다!'가 3월 22일부터 4월1일까지 서울 광진구 세종아트갤러리에서 열린다. 서원대 교수 재직30주년을 기념 하는 이번 전시에서 안동문은 한지 위에 다채로운 붓놀림과 다양한 채색 표현으로 다채로운 꽃의 세계를 담아냈다. 특유의 기운생동 필법으로 일필휘지처럼 단박에 펼쳐낸 대담한 구도의 대작 '매화동백'에는 언뜻 무질서하게 보이는 화폭 속에 개화(開花)의 경이로움과 꽃이 피는 과정 속 희로애락



의 투쟁이 오롯이 담겨있다. 한편 모교 회화과 및 동 대학원 동양화과를 졸업한 안동문은 현재 서원대학교 교수로 재직중이며 2001 조지메이슨 대학 교환교수를 지냈다. 1991년 중앙미술대전, 1992년 동아미술제, 1993년 대한민국 미술대전 등에서 입상했으며, 1999년 뉴욕 폴록-크레스너 재단상을 수상했다.

새봄이 오다 손은신(손신·82음미)

손신(손은신) 동문의 특별초대전 '새봄이 오다'가 오는 4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3부에 걸쳐 (사)케이메세나네트워크 전시관에서 열린다. 1부 '동행, 09-19-15-26'(2018)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북한 정상 손이 손을 잡고 우리 땅을 확인하는 장면을 담고 있다. 2부 '2019'는 2019년 10월 5일 서초동집회를 드론을 띄워 촬영했다. 3부 '코로나19-숨, 04-08-15-07'(2021)은 2021년 4월 8일 경기도 한 야적장에서 드론으로 촬영했다. 손동문은



모교 졸업 후 문화예술운동, 남북한 문화예술교류, 한반도 평화 프로젝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남북한 분단 이후 한반도는 다양한 갈등이 곳곳에 침투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런 갈등 극복을 위해 작가적 시각에서 함께 연대하고 극복하고자 한다"며, "남북한 관계가 하루빨리 회복되어 서울, 평양에서 남북한 작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전시회를 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내년에는 북경과 뉴욕에 환경문제를 주제로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다.

Fe-산수 작품전 김종구(84조소)



'씻가루 산수화'로 알려진 김종구 동문의 개인전이 4월 11일까지 포항에서 열린다. 포항시 북구 소티재로 아트스텔라 서밋 갤러리 오픈 기념으로 열리는 이 작품전에는 김동문이 쇠를 깎아 만든 씻가루를 캔버스에 고정하는 방식으로 탄생시킨 '풍경', '두개의 산', '공중산수' 등 30여점을

선보인다. 김동문은 1997년 영국 남부 루이스시에서 야외 조각 전시에 참여 중 '기다란 인체 통 쇠 조각' 작품을 도난당했다. 허탈한 마음에 작업실 바닥에 쌓여 있던 쇠가루를 쓸어 모으다가 영감을 얻어 이후 쇠가루를 주재료로 특유의 조형 세계를 구축해왔다. 수백 킬로그램이 넘는 육중한 쇠덩어리를 깎는 행위를 통해 형태를 물질로 환원하고 이를 다시 예술의 장으로 옮겨놓는다. 한편 김동문은 모교 조소과와 영국 첼시미술대를 졸업했다. 그의 작품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독일 리튼아트파운데이션, 싱가포르 비즈니스센터 등에 소장돼 있다. 김동문은 1990년 대한민국 미술대전 대상, 2002년 김세중 청년 조각상 등을 수상했다.

VANITAS 신미경(86조소)



신미경 동문의 개인전 'VANITAS'가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23일까지 아트프로젝트씨오에서 열렸다. 신동문은 이번 전시에서 대표작인 '페인팅 시리즈'와 '고스트 시리즈' 등을 선보였다. 전시 타이틀 '바니타스'는 허무 혹은 덧없음을 뜻하는 라틴어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란 성경 전도서 1장 2절의 구절로, 인생무상과 허무주의로

해석될 수 있다. 신동문은 이를 현대적 언어로 재해석해 텅 빈 사이 즉, 동양적 해석으로 보자면 허실상생(虛實相生)의 다양성을 드러냄으로써, 유물이 가진 원본성에 대해 가치론적 질문을 던지고자 했다. 한편 신동문은 모교 및 동 대학원 조소과를 졸업하고 1998년 런던 슬레이드미술대학 대학원을 졸업했다. 2017년에는 영국 왕립예술대학교에서 유리와 세라믹 분야의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서울과 런던을 오가며 국제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신동문은 영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30여회의 개인전을 열었으며, 런던의 영국박물관, 사치갤러리, 빅토리아&앨버트박물관, 한국 국립현대미술관 등 국내외 주요 기관에서 열린 단체전에 참여했다. 문예진흥기금을 비롯해 국내외에서 15여 차례 수상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이광호 개인전 이광호(87서양)



이광호 동문의 개인전이 지난해 12월 11일부터 3월 12일까지 제주시 갤러리2 중선농원에서 열렸다. 이동문은 두 차례나 직접 보며 둘러본

뉴질랜드 습지 풍경을 화폭에 옮겼다. 작품 6점 모두 2018년 이동문이 뉴질랜드 여행 중에 마주했던 케플러 트랙 습지이다. 갤러리2 중선농원은 "작가는 습지에서 경험한 것이 관람객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길 바라고 있다"며 "자연과 자신이 서로 마주보는 순간에 삶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지만 그때 몰려오는 외로움은 그 아름다움에 공감해 줄 누군가를 찾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동문은 '선인장' 시리즈 등 사실주의적 회화로 잘 알려져 있으며, 모교와 동 대학원 서양화과를 졸업후, 현재 이화여대 서양화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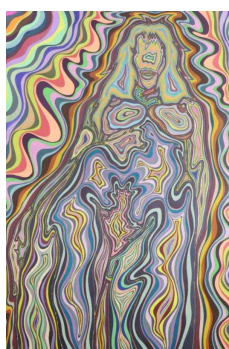
나는 어디로 가고 있다 채현교(90서양)



채현교 동문의 12번째 개인전 '나는 어디로 가고 있다'가 3월 15일부터 4월 3일까지 유니온아트센터 갤러리 오엔에서 열린다. 환상적 바닷속 풍경을 형형색색으로 표현해 '사유의 시간'을 제공하는 콘셉트로 유명한 채동문은 이번에도 같은 풍경을 담은 신작들을 선보인다. 종전 작품에 비해 작품 색조가 더욱 강렬해진 반면 검정색을 바탕으로 단 두 가지 색조만 사용한 작품도 내

뒀다. 채동문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다'라는 전시 및 작품 제목을 30여년전 졸업전시부터 쓰고 있다. 그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두터운 장벽을 스스로 깨부수고 성장하는 인간의 힘, 그 과정에서 분출되는 다양한 생명력이 어우러지는 아름다움을 바닷속 풍경으로 표현하고 있다"면서 "보는 이들의 상상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전시회마다 같은 주제를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채동문은 모교 서양화과를 졸업하였으며, 1996년 관훈갤러리를 시작으로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 아시안 라이브 갤러리, 갤러리 무이, 사이아트 갤러리,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갤러리H, 이안아트스페이스, 한경갤러리 등에서 개인전을 진행한 바 있다.

춘화전-욕망이다 윤주일(91공예), 이자정(조이스 리·05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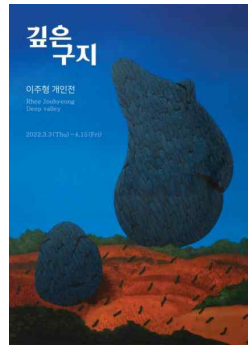


윤주일 동문과 조이스 리(이자정) 동문이 지난 3월 9일부터 29일까지 무수갤러리에서 '춘화전-욕망(Desire)이다'를 열었다. 이동문은 이화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와 모교 시각디자인과를 졸업한 작가이자 약 40만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이다. 이동문은 작품의 곳곳에 전통적인 여성의 상징인 물, 복숭아, 석류, 꽃 등과 남성의 상징인 바나나, 구슬 등의 오브제를 넣어 욕망을 화려하고도

해학적으로 표현한다. 그의 작품은 Numero 등 다양한 매거진 커버에 활용되었고, 해외 클라이언트 개인소장이 약 90여 점에 이른다. 윤주일 동문은 모교 공예과와 동 대학원 도예 전공을 졸업하고 수원대학교와 서울예고 강사로 후학들을 지도하고 있다. 윤동문은 작가노트에서 현대 사회의 "화려한 겉모습, 채워지지 않는 결핍감, 점차 가치를 잃어가는 인간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을 수 없는 욕망"을 "가장 저렴하고 흔한 시멘트, 각목, 합판 등 건축자재를 이용하여 도시의 여성으로 표현"하였다고 설명했다. 윤동문은 10여 차례의 개인전을 가지고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하였으며, 서울현대도예공모전 특선(2003), 서울미술대상전 특선(2003) 등 다양한 수상 경력을 가지고 있다.

깊은 구지 이주형(95서양)

이주형 동문의 개인전 '깊은 구지'가 3월 3일부터 4월 15일까지 파주 소재 갤러리박영에서 열린다. 이동문은 2009~2011년까지 갤러리박영의 레지던시 프로그램인 스튜디오박영 2기 작가였다. 2년간의 레지던시가 끝난 직후 성곡미술관에서 오늘의 작가로 선정된 바 있다. 갤러리박영은 다양한 작가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개관 후 5년간 많은 작가와 호흡했다. 스튜디오박영의 초창기 멤버이자 작가로의 성장을 함께했던 이동문이 파주를 떠난 지 12년 만



에 함께하는 개인전은 그 의의가 남다르다. 전시 제목 '깊은 구지'는 그가 유년을 보낸 심곡동의 순우리말이자 깊은 계곡을 의미한다. 계곡은 '곡(谷)'에 따라 그늘이 지기도 하고 뜨거운 빛이 내리쬐기도 하며, 그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 이동문은 이번 전시에서 두 가지 면모가 공존하는 내면을 포착해 또리를 튼 털이 존재하는 깊은 구지의 풍경으로 만들어낸다. 또한 다중적인 성격을 가진 작품을 통해 혼란스러운 현시대에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치유하고자 한다.

Blue Mountain 임채욱(95동양)

임채욱 동문의 개인전 'Blue Mountain'이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30일까지 삼청동 갤러리1에서 열렸다. 동양화와 사진의 경계에 선 작가라고 평가 받는 임동문은 붓 대신 카메라로, 수묵이 아닌 사진으로 현대적 산수화를 재현해 낸다. 특히 지난 10년간 특별 제작한 프린트용 한지에 한국의 산을 담아내는 작업에 매진해왔다. 전국의 산을 수없이 누비며 임동문이 발견해낸 한국산의 정체성은 쪽빛에 물든 겹겹의 능선들이었다. 이번 전시에서도 선보인 '블루마



운틴' 시리즈를 통해 중첩된 한국 산의 매력과, 깊은 푸른 빛을 감상할 수 있다. 청량한 푸른 빛의 산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조건들이 수반되어야 한다. 바람이 불지 않는 맑은 겨울날 오전 해가 역광으로 비출 때 가장 짙은 푸름을 만나고 이를 작품에 담아낼 수 있다. 한지의 질감에 스민 잉크의 효과는 사진과 회화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몽환적인 느낌을 자아낸다. 한편 임동문은 모교에서 동양화를 전공하였고 졸업 후 벤처 사업가로 활동하다가 2008년 사진작가로 데뷔했다.

Ink on Paper III 손동현(98동양)



손동현 동문의 개인전 'Ink on Paper III'가 3월 3일부터 4월 2일까지 평창동 갤러리2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그림의 지지체가 되는 '종이'에 초점을 맞췄다. 한지는 롤러로 압착시키지 않고 발로 떼서 말리기 때문에, 섬유질 사이의 틈이 많아 인쇄나 필기용으로 쓰는 양지와는 성질이 다르다. 그러한 특성을 효과적으로 응용한 것

이 바로 동북아시아의 전통회화이며, 구겨진 한지는 물을 뿌리면 다시 살아나므로 동양에서는 다양한 표구 방식이 발달했다. 손동문은 그러한 한지의 특성을 잘 보여주기 위해 색채를 배제하고 먹만 사용해 수묵산수화를 표현했다. 전시에서는 접었다 펴지는 종이의 성질과 함께 족자, 화첩, 부채 등 다양한 그림의 표구 방식을 살펴볼 수 있다. "종이에 먹"을 의미하는 전시명 'Ink on Paper'는 손동문이 작품 캡션에 사용하는 문구로, 재료 문구를 하나의 주제로 접근해보자는 생각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번 전시의 큰 특징은 손동문이 이전과는 다르게 작품에 인물의 형상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먹의 재료로 사용하되 모필 없이 다양한 기법을 활용해 수묵화를 그려낸 것이다.

그리고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 이근민(01서양)



이근민 동문의 개인전 '그리고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And then none were sick)'가 코오롱의 문화예술 나눔공간 '스페이스K 서울'에서 3월 10일부터 5월 18까지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 이동문은 경계성 인격장애라는 자신의 병리적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한 회화와 드로잉 31점을 선보인다. 이동문은 미국 미술전문지 '아트포럼'과

'아트인아메리카'에 연달아 작품이 소개되면서 해외에 이름을 알렸다. 이동문은 2009년 첫 전시를 시작으로 국내외에서 9회의 개인전과 10여 회 단체전을 가진 바 있으며 2016년에는 뉴욕의 파이어니어 워크스(Pioneer Works) 레지던시에 참여했다. 또한 스페인 마드리드의 콜렉션 솔로(Colección SOLO)에 이동문의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한편 개인을 통제가능한 대상으로 바라보는 현대 사회의 합리성이 결코 다다르지 못할 지점에서 이동문은 효율만을 위한 규격화가 아닌 가능성의 편에서 확장적 에너지를 발견한다. 그리고 한 개인이자 작가 그리고 예술 언어가 가질 수 있는 비전을 이번 전시 '그리고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멀어진 날들 이혜진(03동양)



이혜진 동문의 개인전 '멀어진 날들'이 지난 3월 16일부터 3월 22일까지 삼청동 갤러리 도스에서 열렸다. 종이, 건식 재료, 먹을 사용한 드로잉과 회화 작품이 전시되었다. 기억에 대해 물을 때 으레 '무엇을'보다는 '어디서'가 앞선다. 공간은 기억의 형상을 간직하고 기억은 공간에 조판되어 있다. 이동문은 이 불

가분의 관계에 주목하여 공간을 화면에 담고, 그 과정을 통해 또다시 기억을 소생하며 공유하고자 했다. 이동문의 회화 언어는 단순히 보이는 것을 제시하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감각과 감정을 지각하게 하며 눈에 띄지 않는 것들과 때로는 낯설게 보이는 것들에 대한 기억을 전하고자 한다. 한편 이동문은 모교 및 동대학원 동양화와 석사 과정, 미술학과 박사 과정을 졸업하였으며 University of the Arts London에서 M.A. Drawing 학위를 받았다. 8회의 개인전과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하였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경영대학, 서울시청,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현대건설, LG인화원 등 다수의 기관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검정은 침묵의 동의어다 현승의(11동양)



현승의 동문의 개인전이 3월 27일부터 4월 10일까지 송파구의 신생예술공간 '오온'에서 개최된다. 그동안 고향 제주도를 주제로 관광산업의 이면에 자리한 여러 담론들을 작품으로 표현해 온 현동문은 이번 전시에서 외부인들에 의해 낭만적인 관광지로 타

과 같은 다양한 이슈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작품들을 선보인다. 제주의 다양한 모습들을 어두운 이미지로 담아내는 작업인 만큼, 다양한 소재들이 작품 속에 차용되어 숨겨져 있던 여러 가지 제주의 이야기들을 한 공간에서 느껴볼 수 있다. 현동문은 "누군가가 작품에 공감하고 감응할 때, 그 정서적인 의사소통 방식이 작은 씨앗이 되리라고 믿는다"며 "나의 작품이 이미지를 넘어서서 어떠한 계기가 되기를, 단순히 한 지역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두의 담론으로 확장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한편 현동문은 모교 동양화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제주와 서울을 오가며 활동하고 있다. 회화와 설치, 영상을 아우르며 다수의 개인전과 그룹전에 참여하였다.